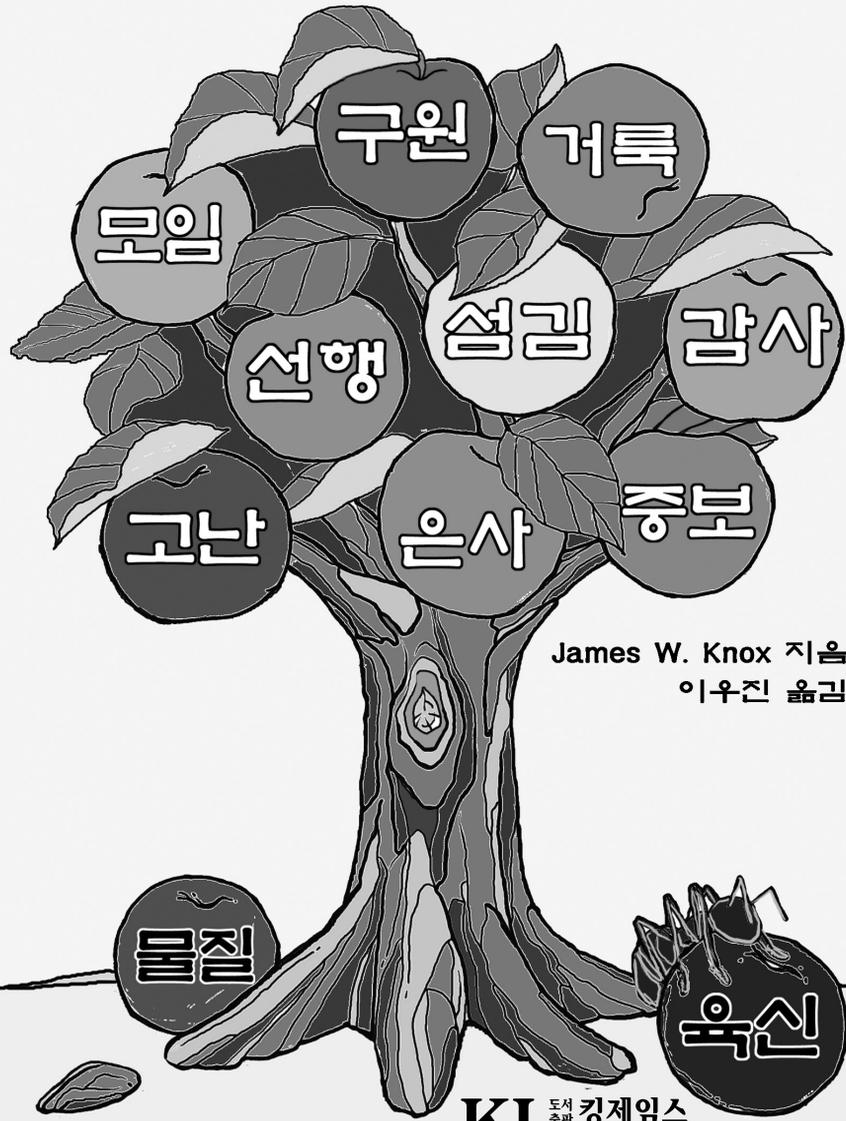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The Will of God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하나님의 뜻

지은이 | James W. Knox

옮긴이 | 이우진

펴낸이 | 김영균

초판발행 | 2011.6.11

발행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ib.com

표지그림 | 이장용 [jy13b@naver.com](mailto: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mailto: choilove72@hotmail.com)

■ ISBN 978-89-89741-30-5

■ 정가 1,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독자들에게 알리는 글

이 글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덜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설교한 갈라디아서 강해중 일 부인 The Will of God 1, 2의 내용을 요약하여 옮긴 것입니다. 책이 아닌 설교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하고 요약한 것이니 양해 바랍니다. 비록 요약이지만,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Part 1/2

본문은 갈라디아서 1:1-5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

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들은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을 성경 밖으로 끌어내어 경험과 감정의 영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것이나 경험한 것이나 본 것이나 상상한 것이나 머리 속에 갑자기 떠오른 것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선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고 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상상

영감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영들을 시험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열거한 말들은 성경에 없는 말들이며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감정에 근거한 추측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더욱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성경에는 어떤 색의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 중간에서 멈춘다고 해서 “그 차를 구매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 어느 주택을 구매할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는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일 완벽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 받지 않은 두 남녀가 결혼한 후에 구원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10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 어느 것에도 베네수엘라나 콩고 중 어디로 선교를 떠나야 할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고국에 남을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의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뜻을 알고 행하기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 원한다면 문제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기독교 방송이나 이상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책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분명하고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명백한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요일 2:16)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현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면 모두 이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에 집을 사고 어떤 차를 구입하고 어떤 색 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한 현 세상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오는 세상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일을 위해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는 모든 문이

열려 있었지만 결국 지옥에서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교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바울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2.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책이나 강연이나 신문기사나 영상 등 정보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독자가 살을 빼는 데 관심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집을 수리하고 고치고 꾸미는 것에 관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책과 정보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성령님도 내주해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치 않는다면 이런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지 않고 늦잠을 더 자거나, 아니면 바르게 살기보다 죄를 지으면서 살거나, 아니면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육신을 기쁘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것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서 1:9-10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로마서 15:31-32도 보겠습니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로마서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들로부터 떠나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고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위해 매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통해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만일 “나는 교회에 가지 않아도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통해 배울 것도 없기 때문에 더는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나를 더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배를 타기도 했고 울기도 했고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는 등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성도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조차도 자신이 불신자들로부터 나와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교회에 나와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거의 매일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온갖 욕설과 불경건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 물든 우리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모여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더러움 속에 뒹굴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더러운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노래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8:5을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아니고 나의 생각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잘 들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TV와 뉴스미디어를 통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러분을 세뇌시켜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도 그

교회가 자신을 즐겁게 해 주지 않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도 남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되었어.”라고 말하는 경우, 말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완벽했다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헤어지는지 아십니까? 각자 자기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둘째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첫째 자리에 두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찬송을 부를 때도 있고 별로와 닿지 않는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설교 시간에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음…이 설교는 저 형제를 두고 하는 거구만…”

교회에 와서도 자신만 생각하고 교회가 자신을 배려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면서 쓴뿌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로 기분이 언짢아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와 악수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와 악수를 해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불평만 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우선순위에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

고 섬기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하지 않습니까?

4.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제 저녁 밖에 나갔는데 바람이 매우 거칠게 불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맞으며 내 머리 속에 한가지 강력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것은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러한 경험에 따라 인도에 가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어떤 특별한 느낌이나 인도를 받은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인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인도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겠습니까? 자신이 초자연적인 인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미 알려주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미 자신의 뜻을 모두 밝히 드러내어 알려 주셨습니다. 이미 알려 주셨는데 자신에게만 특별한 뜻을 알려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섬길 누군가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다윗은 이것에 관해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36을 보십시오. “이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으나” 다윗은 자기의 가족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이웃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선교지에 가면 사역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동생, 형, 누나, 아들, 딸부터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마을, 지역에서부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마을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종족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것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을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마을과 직장과 가정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다른 특별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특별한 지역에 가기 전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먼저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입니다. 각자 섬기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인가는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부분에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여러

분입니다. 목사님이 대신 복음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목사가 대신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교회에 오면 설교자와 주일학교 교사가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여러분이 진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거리에서 여러분이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5.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8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갈 6:7-8) 제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가정과 간증을 망치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죄인이 마귀의 뜻대로 행해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문제와 생의 어려움과 고난에 마주치더라도 미움과 쓴뿌리와 복수심과 야비한 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구원 받은 사람들이 다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십니까? 바로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불평할 것

보다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혜택이며 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개인 승용차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 승용차가 없어도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입고 편하게 교회까지 왔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집에 에어컨이 있고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굶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누리고 있지만 이전 세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부입니다. 우리는 주식이 떨어지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떨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버릇없는 어린 아이마냥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며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는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수한 감사로 이루어진 기도를 드려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 일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셋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과 입을 옷과 형제 자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것

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결국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것을 알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6.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순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2:15-16을 보십시오.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 구절은 우리를 비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

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정죄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과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평한다고 해서 반론을 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거짓 비방에 맞서기 위해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 비방할 때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것에 대꾸하지 말고 의롭고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반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진리 안에서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를 비방해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위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로서 우리가 정당함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티커를 만들어서 자동차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붙이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말들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에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고 해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대로 어리석은 대로 두고 무식한 자는 그대로 무식한 대로 두고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간에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침묵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더라도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사를 뒤돌아보면 기독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간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개신교가 천주교를 비방하면 천주교는 군대를 보내서 비방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천주교가 개신교를 비방하면 개신교도 군대를 보내서 비방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에서의 전쟁은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의 전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신교든 구교든 기독교 자체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들을 비방하는 상대방

을 문자적으로 침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의 비방은 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대포와 총과 고문 기구로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방하는 상대방을 조용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모든 비방은 멈추게 된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방을 받는다면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비방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비방을 없애는 빠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절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우리 세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쇼핑몰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 쉽습니다.

Part 2/2

사람들은 성경에 많은 것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른 것을 더하게 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은 매우 분명하고 알기 쉽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더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 11:3)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표적이나 느낌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특별한 경험이 있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의 뜻을 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거나 자신만이 특별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모두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더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성경 이외의 더 특별한 계시를 받은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감춰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생의 다른 문제들에 빠져서 거기에 몰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갈 1:3-4)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함이었습니다. 성경

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악한 이 현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여전히 세상과 일치시킨 채 살아 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교리와 음악도 세상을 쫓아갑니다. 교회가 이 악한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 이 세상에 맞추고 심지어 성경까지 이 세상의 구미에 맞게 뜯어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멀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마 7:13)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은 이번 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주 일요일 이후로 7일이 흘렀습니다. 그 모든 날 동안, 그 모든 시간 동안,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한 일 말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담아 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인생 중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찬양도 똑같고 기도도 똑같이 설교는 조금 나아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시들어 버렸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많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없고 적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라는 특정한 장소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무런 훈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자연스럽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새사람에게 속한 일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나이가 지긋한 형제님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형제의 여행의 모든 부분은 주님께 감사드림으로

연결되어있었습니다.

7.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17-18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4:19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이다.”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를 행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간증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을 여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간수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했고 결국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으며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계속해서 의를 행한다면 우리의 간증은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증언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난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8.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6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은 음행을 조장합니다. 이 세상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열정과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조절해서 음행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앞뒤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본능에 따라 삽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 봐 걱정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은 영화와 TV와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답게 살라고, 거룩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음행을 삼가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고 매우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9.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1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테네는” 같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1장과 갈라디아서 1장과 에베소서 1장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선지자나 복음전도자도 영적인 은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도 영적인 은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하메드의 사도도 있습니다. 그들은 모하메드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들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종교를 세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 받은 회사원이고 의사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름 받은 의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섬길 수도 있고 세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영광이나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모두 하는 일이 다르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지체라도 그것이 없으면 장애인이 됩니다. 새끼손가락이 없어도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지만 온전한 몸이 아닌 장애를 지닌 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은사일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받은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있었습

니다. 우리 중에는 받은 은사를 다른 데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모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선 교회가 있다면 모두 오늘 당장 망하고 문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단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사역의 목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어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만일 어떤 지역에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목사가 되려고 교회를 세운다면 이미 그런 교회는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부르심 없이 단지 목사가 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목사일

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일 수도 있고 그냥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사원일 수도 있고 그냥 회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일 수도 있고 그냥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집을 구매할 것인지 월세로 들어갈 것인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지 혹은 홈스쿨을 할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홈스쿨을 해도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보내도 훌륭한 복음전도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이를 정규 학교에 보내느냐 아니면 집에서 가르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그 기준에 어긋나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여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다

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고 기록하고 성별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적인 자동차가 있고 영적인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10.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26-28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

고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우리도 성령님처럼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 하나님도 중보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중보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떤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무얼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기도를 응답 받지 못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그 기도는 정말 거의 응답 받지 못하고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더디게 응답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목록을 보면서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많음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의 응답 받지 못한 기도 목록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일 3:23, 4:7).

성령님께서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혹은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향해서 쓴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꾸준히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본 위의 열 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Know it). 둘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Do it). 셋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해야 합니다(Do it completely). 매우 단순합니다. 알고 행하고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Know it, Do it, Do it completely).

로마서 12:1-2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저를 가르치던 주일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본문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어떤 일은 받으시지는 않지만 선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선하면서 완전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

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희생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들을 보면서 저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저 자매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하신 뜻”보다는 “받으실 만한 뜻”이 더 낫겠지 싶어 “받으실 만한 뜻 자매”에게 프리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장에서 신부 친구 중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자매”를 발견하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를 세 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룩하시거나 흠이 없으시거나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시고 더럽혀지지 않은 분이십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거나 한 아들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놀라우신 이이시거나 조연자이시거나 강하신 하나님이시거나 영존하는 아버지이시거나 평화의 통치자이신 게 아니라 놀라우신 이이시며 조연자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는 아버지이시

며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음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하신 뜻입니까, 받으실 만한 뜻입니까, 완전하신 뜻입니까? 음행을 하든지 음행을 하지 않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음행하지 않으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것은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고 받으실 만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받으실 만하지는 않지만 선한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12:2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특징을 자세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드리거나 받으실 만하게 드리거나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이지 각각 다른 단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2절도 하나님의 세 가지 뜻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모두 함께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이 거룩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면서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골 4:12)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완전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기 바랍니다. 행하되 완전하게 행하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좌절하거나 그만두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